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날짜 : 2015년 12월 5일 (土)
문의 : 언론팀 한선범 국장
(010-4731-4045)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http://2015peoplepower.tistory.com>

**12.5 2차 민중총궐기 및
백남기농민 채유 기원,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2015년 12월5일(土) 15:00, 서울광장

목차

- 대회 순서
- 대회사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 민중총궐기 선언문
- 국제연대 메시지 및 관련 보도자료

대회 순서

1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살인진압 공안탄압 규탄! 노동개악 저지! 박근혜 물러나라 민중총궐기

- 사회: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공연 : 총파업 문선대(8분)
- 한상균 위원장 영상발언(3분)
- 민중총궐기 선언문 낭독(10분)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김영호 전농 의장 / 강다복 전여농 회장
조덕휘 전노련 의장 / 김현우 빈철연 의장 / 박석운 민중의힘·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국제연대 보고(사회자)

2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 사회: 김덕진 백남기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 공연 : 6.15합창단
- 백남기님의 가까운 동지 발언(가농에서 준비) (5분)
- 공안탄압 규탄 발언 : 민변 조영선 사무총장 (3분)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발언
- 세월호 유가족 발언
- 백남기 선생님 영상
- 마무리 발언 : 행진 선포

행진

- 경로 : 서울광장 -> 무교로 -> 모전교(청계남로 이용) -> 광고 -> 보신각R -> 종로2,3,4가 -> 종로5가
-> 대학로(서울대병원 후문)
- 행진순서 : 풍물-탈춤-바람개비-메인방송-대표단 및 종교계-참가자(농/빈/노)
- 행진퍼포먼스 : 꽃 들고 행진 / 머리 위 대형 현수막/ 쾌유기원 퍼포먼스(꽃) - 종각부근

대학로 촛불 문화제

- 사회: 조병옥 전농 사무총장
- 발언 :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의장
- 발언 : 000
- 백남기님 가족 발언
- 노래공연
- 마무리 발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대회사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입니다.

정권의 광기어린 탄압 때문에 오늘은 부득이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우리는 오늘 13만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매도하는 정권,

공안광풍으로 민중의 요구를 묵살하는 정권에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누워계신 백남기 선생님을 찾아뵙지도,

살인폭력 책임자를 쫓아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쾌차하시기만을 빌고 또 빌고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 살인공권력의 만행을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 또한 조계사에서 백남기 선생님의 쾌유를 기원하며 정진, 또 정진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공안정국입니다.

수백 명이 구속, 수배, 체포, 소환되고 있습니다.

30년 전,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폭력적 공권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유지할 수 없는 이 정권의 위기를 감추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2차 민중총궐기를 평화적 국민대행진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허가받을 필요조차 없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국가권력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중들의 평화는 국가권력의 폭력을 인정하는 평화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가권력의 폭력에 맞서는 모든 행위는 정당방위임을 정권에 경고합니다.

동지들! 오늘부터 폭력적 공권력에 단호히 불복종을 선언해야 합니다.

복면을 하지 말라하면 가면을 씌시다. 협박을 하면 조롱을 합시다.

때로는 꽃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시다.

그러나 저들의 폭력이 우리의 몸뚱이를 가져갈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은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역사의 범법자는 바로 이 정권임을 낱낱이 확인시켜 줍시다.

동지들!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막말이 점입가경입니다.

시위에 나선 민중을 IS로 규정하는 대통령,
민주노총이 없었으면 국민소득이 3만불이 되었다구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권력의 총견을 자처하는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 정권의 민낯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게 한 것도
결국 우리의 정당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월 14일, 우리 민중들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한 투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총칼로 집권한 군사독재에 맞서 민중항쟁을, 그리고 노동자 대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잠깐의 탄압을 받을지언정,
폭력적 독재정권이 결코 우리의 투쟁을 멈추게 할 수 없다, 당당하게 의연하게 행진합시다.

뼈빠지게 일해도 희망이 없는 나라,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으로 살아가야 하는 940만 노동자,
그런데 언제 짤릴지 모르는 일상으로 돌아가라구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일 수 있습니까?
민중을 억압하며,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천년만년 가는 권력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자본 배만 불리는 노동개약을 중단하라!
농업을 팔아먹는 개발농정, 반농업정책을 폐기하라!
빈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점상철거를 중단하라!
청년들에게 정규직 좋은 일자리 대책을 만들어라!
친일과 군사독재, 그 연장에 있는 한국현대사, 불의한 정치권력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한 한국교과서 국정화
를 중단하라!
이런 우리의 요구가 살인 물대포에 생명을 가게 할만큼 잘못된 요구였을까요?

자랑찬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민주노총이 또 다시 침탈당했습니다.
잊지 맙시다. 그 굴욕과 치욕을 되갚아야 합니다.
2015년, 노동개약을 막아내는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농민과 빈민 동지들!

민주노총의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내겠습니다.

각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역사적인 민중총궐기를 더 강고한 연대로 만들어갑시다.
그 길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겠습니다.

청년 학생, 민주시민 여러분!

정권의 발악이 거셀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 했습니다.

헌법위에서 제왕적 권력을 누리는 이 정권에 절대로 굴복하지 맙시다.

이 정권이 위기를 알기에 공안탄압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는 600만표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만한 정권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선에서는 대단결로 파쇼정권을 누리는 유신부활을 막아내야 합니다.

동지들! 응징할 수 있겠습니까?

동지들! 시민여러분!

저는 지금 정권의 표적이 되어 운신의 폭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있는 곳이 조계사이든, 감옥이든, 투쟁의 현장이든,

이 시대가 저에게 부여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는 약속과 결의를 밝힙니다.

결국은 민중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당당한 주인입니다.

오늘 2차 민중총궐기 그리고 국민대행진이 더 큰 민중의 항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민중총결기 선언문

추후 첨부.

국제 연대 보고

국제노총, 국제통합제조산업노련, 국제공공노련, 국제운수노련, 국제건설목공노련, 국제교원노련,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 국제식품노련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폭력 진압,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노조 간부 및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체포, 구속, 소환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청와대로 보냈습니다.

국제노총과 7개 국제산업노련이 공동발의한 레이버스타트 캠페인과 국제식품노련이 발의한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노조간부 체포 중단, 구속자 석방, 노동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13,000통이 넘는 서한이 청와대 및 주요 대사관에 전달되었습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금지통보에 항의하며 네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브라질, 노르웨이, 아태, 터키, 스위스, 홍콩, 스페인,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독일 등 각국 노동조합, 그리고 아랍노총, 국제노총 아태 조직 대표자들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각국 한국 대사관과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영국, 터키,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 바레인, 몽골, 인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호주, 케냐, 필리핀, 독일, 스위스, 벨기에 운수 노동자들이 항의서한 및 연대서한을 전달했고, 홍콩, 필리핀, 캄보디아의 건설노동자들은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집회참가 및 단체교섭을 이유로 한 건설노동자 구속에 항의하는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백남기 선생의 쾌유를 기원하고 한국정부의 폭력을 규탄하는 연대행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식품노련 아태지역총장 및 사무국, 태국, 미얀마, 파키스탄, 인도, 캄보디아의 농업/식품 노동자들이 연대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도 연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엠네스티와 포럼아시아는 11월 14일 차벽을 이용한 집회 시위의 자유 탄압과 물대포 최루액을 동원한 폭력진압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말레이시아 인권변호사, 태국 온라인 언론 프랏차타이 편집국장,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 3인으로 구성된 국제인권감시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감시단은 오늘 발생할 수도 있는 국가폭력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했던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내년 1월 20일부터 10일간 한국 방문을 앞두고 외신 기사등을 통해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참조

민중총궐기/범국민대회에 국제연대 행동 쏟아져

청와대 항의서한만 13,000통 이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촉구

각국 한국대사관 항의방문, 국제인권감시단 한국에 파견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과 민주주의 억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제노동계, 국제인권단체, 각국 노동조합들이 12월 5일 민중총궐기/범국민대회를 지지하는 등 적극적인 연대행동에 나섰다.

□ 온라인 캠페인 <레이버스타트>, 주요 한국대사관에 항의 폭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폭력 진압과, 11월 21일 민주노총 등 8개 사무실 압수수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집회 참가자 연행 및 구속에 일제히 항의에 나섰다 (<http://nodong.org/statement/7045149>) 국제노동계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및 노조간부 체포 중단, 구속자 석방, 노동개약 중단,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노총(ITUC), 국제통합제조산업노련(IndustriALL),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국제식품연맹(IUF),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 국제교원노련(EI)이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발의한 <레이버스타트> 온라인 캠페인은 영어, 한국어 외에도 프랑스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히브리어, 에스페란토, 포르투갈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헝가리어, 터키어, 체코어, 독일어 등 15개 언어로도 번역되어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12월 4일(23:50) 현재 9,478통의 항의메시지가 청와대 및 주제네바대표부, 주유럽연합대표부, 주OECD 대표부, 주미한국대사관 등에 전달됐다. 또한 국제식품연맹(IUF)이 발의한 별도의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서도 12월 4일 오후(19:35) 현재 4,251통의 항의서한이 한국 측에 전달되었다.

※ 레이버스타트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

http://www.labourstartcampaigns.net/show_campaign.cgi?c=2887

※ 국제식품연맹 온라인 캠페인:

http://www.iuf.org/cgi-bin/campaigns/show_campaign.cgi?c=968

□ 집회금지 및 공안탄압 항의. 한국대사관에 항의행동

국제노총은 12월 4일자 온라인 뉴스에서 한국 정부가 12월 5일 민중총궐기와 12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음을 비판했다. 국제노총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 411명에 대한 수사/소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투쟁 관련 노조간부 9명 구속,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

들의 단체협약 체결을 ‘공갈협박’이라는 혐의를 씌워 탄압한다는 등의 소식을 전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집회의 자유와 노동자 권리를 공격하여 국내외에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알렸다.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독재자처럼 폭력적으로 자국 민중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를 거부하는 사용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고 ILO 및 OECD와 맺은 약속을 배신했다. 이는 모든 나라에 매우 위험한 경로다. 한국정부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기본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12월 4일자 국제노총 온라인 뉴스 :

<http://www.ituc-csi.org/korea-authorities-targeting>

각국 노동조합의 연대행동도 줄을 이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금지통보에 항의하며 네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브라질, 노르웨이, 터키, 스위스, 홍콩, 스페인,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독일 등 각국 노동조합, 그리고 아랍노총, 국제노총 아태조직 대표자들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각국 한국 대사관과 청와대에 보냈다.

홍콩, 필리핀, 캄보디아의 건설노동자들은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집회참가 및 단체교섭을 이유로 한 건설노동자 구속에 항의하는 행동을 전개했다.

※홍콩노총/홍콩건설연맹:

<https://www.facebook.com/BWI.work/posts/1038091819569559>

※캄보디아노총/캄보디아 건설연맹: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50578238469251&id=264352960425114

※필리핀: <https://www.facebook.com/BWI.work/posts/1037713746274033>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영국, 터키,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 바레인, 몽골, 인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호주, 케냐, 필리핀, 독일, 스위스, 벨기에 운수 노동자들이 항의서한 및 연대서한을 전달했다. 특히 호주운수노조는 12월 4일 시드니한국 총영사관을 항의방문했고, 12월 7일 캔버라 주호주한국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 12월 4일 항의방문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Xp1REXDTxw&feature=youtu.be>

□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폭력진압 규탄 식품/농업 노동자 연대행동

국제식품연맹(IUF) 아태지역본부 사무국, 가맹조직, 유관연대조직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고 11월 14일 폭력 진압을 규탄하며 연대 인증샷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태국, 미얀마, 파키스탄, 인도, 캄보디아 농업/식품 관련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동참하였다.

캠페인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ashtag/prayfor백남기?source=feed_text&story_id=978477615557190

□ 12월 5일 집회 앞두고 “국제인권감시단” 입국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국가 폭력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했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가 국제인권감시단을 한국에 파견했다. 국제엠네스티와 포럼아시아는 11월 14일 차벽을 이용한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과 물대포 최루액을 동원한 폭력진압에 항의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이번 국제인권감시단은 뉴 신 예(New Sin Yeh) 말레이시아 출신 인권변호사, 치라누 프렘차이폰(Chiranuch Premchaiporn) 태국 온라인 언론사 프랏차타이 편집국장, 핼시리 목 펫취남롭(Pimsiri Mook Petchnamrob)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 3인으로 구성되었고, 12월 5일 집회 모니터링,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2016년 1월 20일부터 10일간 한국을 방문할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그 결과를 발송할 예정이다.

※ 국제엠네스티 긴급논평: <http://amnesty.or.kr/12021/>

※ 포럼아시아 성명: <http://www.forum-asia.org/?p=19748>

※ 참여연대 보도자료: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379586>

※ 취재문의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010-9279-7106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백가운 010-9436-0316